

## 무자년 새해, 인쇄경기 회복될까?

# 기대치 높지만 결과는 “글썸”



무자년 새해. 인쇄업은 긴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글썸”이 우세한 분위기다. 인쇄인들은 2008년에 새 정부가 출범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건 사실이나 국내외 경제 현실과 인쇄업계의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아 인쇄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국내 타 산업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업종 특성상 인쇄업은 2009년에나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등 경기연구기관들은 2008년에 우리나라는 4.7%~5.1%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도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변수가 많다.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미국의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중국의 성장이 둔화된다면 세계경제는 침체와 불안속으로 빠져들게 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인쇄업계는 연이은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인쇄업은 지난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물량감소가 지속되면서 체감경기 뿐만 아니라 실질경기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이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인쇄 특수가 다소 발생하기는 했으나 선거인쇄물은 일부 업체에 한정되었고 기간도 짧

아 업계 전체의 생산량 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여기에 인쇄용지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는 등 인쇄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인쇄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를 부채질했다. 지난해 국내 소비용 인쇄물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해 5조원을 다소 밑돈 것으로 추정되고 수출은 전년보다 4% 정도 늘어난 1억9천3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2003년의 2억 달러 수출이후 계속 2억 달러를 밑돌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기자재 공급업계의 이슈라면 CTP판재의 국산화였다. 국내 업체에서 CTP판재 개발이 진행되고 OEM방식이긴 하나 중국과 일부 기술을 합작하여 국내 공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기술변화에 따른 디지털인쇄기의 도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긴 하였으나 오프셋인쇄기 공급업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기계 공급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2008년의 인쇄업경기는 전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실제로 인쇄업계에 그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인쇄업계가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해 있어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의 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인쇄기자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인쇄업계의 채산성 회복은 힘들어 질 전망이다.



내수 물량을 증가시킬 '특수요인' 이 없어 내수경기의 침체가 예상되고 수출은 단체와 업체의 노력이 지속되는 만큼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만 유지한다면 2억 달러 돌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쇄기기 공급업체들은 지난해보다는 투자심리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CTP의 꾸준한 증가와 CTP판재의 국산화라는 화두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도 눈에 띈 전망이다.

### 원부자재 가격 불안요소 여전

2008년도에도 내수 시장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높은 펄프가격이 쉽사리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고유가 기조와 각종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가격 인상 요인도 잠재할 것으로 보인다. 단, 2007년에 단행된 계성제지와 이엔페이퍼의 생산설비 정리는 공급초과로 몸살을 앓던 시장에 '과잉 물량 축소·수요공급 물량 조정' 이라는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수출 시장이다. 미국 무역위원회가 지난 2007년에 최종적으로 한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위축됐던 미국 시장에 대한 인쇄용지 수출이 다시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제품들과의 경쟁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 성장이나 퇴보냐의 갈림길

한편 인쇄업계는 올해가 성장이나 퇴보냐의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인쇄업계의 양대 단체인 대한인쇄문화협회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이 새로이 선출된다. 급격한 변화와 위기의 인쇄업계를 리드할 수장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또 오는 1월 20일부터 발효되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쇄업계의 난제들을 풀어가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하는 원년이어서 단체와 인쇄인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중요한 시기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폐지돼 새로운 입찰제도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업계의 혼란을 잠재우고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입이 급감한 각 조합의 수익 창출을 모색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

주요 행사로는 오늘 5월에 열리는 드루파 2008과 30주년을 맞는 국제인쇄기기산업전(KIPES)이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이며 대한인쇄문화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도 업계의 미래를 진단해 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유창준국장 chang@print.or.kr